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제39차 이사회 회의록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CHUNGNAM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제39차 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15. 12. 28.(월) 11:00

2. 장 소 : 충남도청 소회의실 304호

3. 안건 및 심의 결과

①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

②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원안가결

③ 2016년도 사업계획(안) ⇒ 원안가결

④ 시·군 지부 및 가맹단체 규약 일부개정(안) ⇒ 원안가결

⑤ 인사위원회 위원 선출(안)

※ 이사 중 인사위원 4명 선임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비고
유형별	이건휘	道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가맹단체	박광순	道 장애인배구협회	회장	
교육계	김상두	중부대학교 특수체육과	교수	
여성계	이은영	道 장애인보치아연맹	회장	

- 개회시간 11:00 -

< 최재섭 기획총무팀장 >

- 안녕하세요! 장애인체육회 기획총무팀장 최재섭 입니다.
- 지금부터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제39차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성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사 20명 중 14명의 이사님이 참석하여
규약 제19조 의결정족수 규정에 의거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약식진행]
- 다음은 참석하신 이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이신 허승욱 정무부지사님, (주)맥키스컴퍼니 사장이신
박근태 부회장을 비롯하여 김기홍 이사님, 김미숙 이사님, 김병환 이사님, 김상두
이사님, 문인구 이사님, 박광순 이사님, 박길수 이사님, 박노철 이사님, 박혜경
이사님, 이은영 이사님, 이창규 이사님, 한영희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교육청 부교육감 김환식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끝으로 체육진흥과장 신동희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 규약 제21조 2항에 의거 본회 회장을 대신하여 허승욱
상임부회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 허승욱 상임부회장 >

- 네, 먼저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제39차 이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허승욱 상임부회장 >

- 이렇게 만나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요,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밤에 도청 앞마당에 눈이 좀 날릴 정도로
쌓였는데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가서
벌써 한 해 끝자락인데요. 오늘 같이 의견도 나누시고요. 의안이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서 여러 의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장애인체육회
더 나아가서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의견도 같이 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 바로 안전 심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에 상정된 부의 안전별로 순서에 따라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의안번호 제1호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허승욱 상임부회장 >

- 최재섭 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섭 기획총무팀장 >

-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회의자료 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이유는 추가 확보된 보조금 예산을 세입·세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은 대한장애인체육회 행정보조비 지원금이 상향조절 됨에 따라 당초 예산액 대비 1백 30만 1천원이 추가 세입 되었으며 추가 세입예산은 기금사업 회계 위탁정산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허승욱 상임부회장 >

-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추가경정 예산이며 박노철 처장님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 박노철 사무처장 >

- 기획총무팀장이 설명한대로 원래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기금정산 예산으로 1백만원이 세워졌었습니다. 추가로 1백30만1천원이 제2차 추경까지 끝난 상태에서 새로 세입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 박광순 이사 〉

- 이미 자료가 배포되었고, 또 알고 있고,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거고 일단 마이너스가 안 된 것이 좋으니까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 허승욱 상임부회장 〉

- 예. 그러실까요?

〈 이사 일동 〉

- 예.

〈 허승욱 상임부회장 〉

- 예, 그러시면 제1호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사님들이 심의해 주신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허승욱 상임부회장 〉

-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허승욱 상임부회장 〉

- 최재섭 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섭 기획총무팀장 〉

-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는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이유는 충남장애인체육회 규약 제31조에 의거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 2016년도 세입 예산은 2015년도 29억4천3백9만9천원 보다 26억3천5백94만원이 증가한 55억7천9백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세입 항목별로는 세외수입에서 1억3천1백70만원으로 2015년 대비 7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고 보조금은 8억3천9백64만6천원으로 2015년 대비 1억7천6백3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46억7백69만3천원으로 2015년 대비 24억8천24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015년 대비 3천5백28만6천원이 증가한 7억6천3백8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진흥부분에서는 2015년 대비 1천75만8천원이 증가한 9억3천3백2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체육 진흥부분에서는 2015년 대비 3억1천4백99만2천원이 증가한 15억8천7백8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내년 충남에서 열리는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비는 22억9천4백8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허승욱 상임부회장 >

- 예, 질문이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철 처장님 보완 설명 주실 말씀 없으실까요? 내년도 장애인체전 준비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특히 중점적으로 내년 예산안에서 고려한 점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노철 사무처장 >

-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시면 세외수입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외수입이란 것은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업의 후원금을 포함해서 세외수입이라고 하고 있고요.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기금에서 내년도 전국체전 개최하는 관계로 2억3천을 기금 지원됩니다. 그 부분이 늘어났고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든 형태고요. 도비보조금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시다시피 내년도 36회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원금입니다. 그래서 20억6천만원이 도비로 더 세워져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인력운영비에서 한사람의 직원이 더 채용된 부분하고 인건비 상승분 그 부분하고요. 크게는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국체전에 대한 기금과 도비보조금이 25억6천정도 늘어난 그 수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허승욱 상임부회장 〉

○ 전년도 예산과 비교할 때는 어느 정도 증가한 것이지요?

〈 박노철 사무처장 〉

○ 26억3천5백만원 정도 입니다.

〈 허승욱 상임부회장 〉

○ 도 예산하고 내년 재정 전망이 사실은 그렇게 밝지를 못해서 대부분의 실국이 거의 올해 준해서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 말씀드립니다.

〈 김상두 이사 〉

○ 내년에는 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우리 본 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예산이 22억 추가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요 예산이 시설투자냐, 인력이냐, 어떤걸 보강하기 위해서인지,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것만 듣고 싶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 박노철 사무처장 〉

○ 현재 20억6천5백만원에 대한 부분하고 기금 2억2천9백만원에 대한 예산은 시설보강은 체전기획단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운영에 대한 부분, 경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치중되어 있고요. 개·폐회식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국체전기획단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허승욱 상임부회장 〉

- 예, 예산이 꼼꼼하게 잘 가계부를 일단 쓰셨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이나 의견 없으신지요?

〈 이사 일동 〉

- 없습니다.

〈 허승욱 상임부회장 〉

- 그러면 원안대로 의안번호 제2호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사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허승욱 상임부회장 〉

- 의안번호 제3호입니다. 사업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허승욱 상임부회장 〉

- 예, 최재섭 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섭 기획총무팀장 〉

- 2016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이유는 충남장애인체육회 규약 제31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체육회 2016년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먼저, 2016년도 여건과 과제입니다. 210만 도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통해 충남장애인체육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가 있으며 시·군 장애인체육회 설립 확대와 장애인체육 소외계층의 지원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공적 개최와 상위입상을 도모하고 15개 시·군 지부 설립을 통해 균형적 장애인체육 발전과 장애인체육 소외계층 지원확대로 잠재군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 2016년도 장애인체육회 중점 사업진행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로 전문체육 진흥의 발판을 만들고 경기장을 상시 훈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체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지원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내실 있는 생활체육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를 통해 장애인체육 인식개선과 체육현장 이동권 확보를 통해 언제든지 체육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세부사업은 자료로 대신하며 이상 2016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허승욱 상임부회장 >

- 예. 질문이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혜경 이사 >

- 지금 2015년에 비해서 16년에 달라지는 사업이 있습니까? 신규 사업이 있는지 그 부분만 보고 받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허승욱 상임부회장 >

- 예, 특징되는 신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최재섭 기획총무팀장 >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설명하셨던 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가 크게 달라지는 사업이고요. 생활체육사업 쪽에서는 관람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서 체육 활동을 주저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에게 심리적인 지원을 통해서 보다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 또 한 가지는 저희 쪽에서 체전이 개최됨에 따라서 참여에 대한 인원수를 선수 확대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개최 참가비나 훈련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증가가 됐고 그렇게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허승욱 상임부회장 〉

- 예, 아무래도 내년도에 36회 전국장애인체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행사인 것은 분명한데 저희들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만, 행사로만 그치지 말고 장애인체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내용적으로 뜻과 지혜를 좀 모아야 되겠다. 그런 고민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이사님들께서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연대보증 서는 심정으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켰다고 해서 그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늘 시기적절하게 내용을 채워나가자 이렇게 다시 한 번 꼭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박광순 이사 〉

-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화두일수 밖에 없고 내년도 사업에 꽃일 수밖에 없는데 종합순위가 3위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3위 이상을 거두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고 선수들의 어떤 기량의 향상을 통해서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만큼 장애인체육의 활성화, 꽃을 활짝 필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 맞는 성적을 이루어내야겠고 또한 다른 시도 올해는 강원도에서 열렸지만 내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열리는 만큼 좀 더 특색이 있는 그런 전국체전을 준비해야 되는데 선수들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참가선수가 늘어나고 예산액도 증가하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1, 2차로 지금은 훈련시스템을 보면 1차 훈련을 실시하거든요. 좀더 1, 2차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산적인 것들이 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산을 그대로 가더라도 훈련을 1, 2차로 한다던가 1차에 좀 더 세밀한 선수 선발을 통해서 우수선수들을 선발할 수 있는 가맹단체의 준비력을 높이는 것들이 준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또 하나는 특색이 있는 전국체전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가를 해봤지만 각 가맹단체들, 각 시도, 회의나 이런 때 선물 같은 것도 간식이죠. 이런 것들을 내주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전체 선수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예산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가맹단체 회장들, 준비하는 기획단, 선수들 다 같이 위할 수 있는 충남 아산에서 개최되는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뭔가 틀리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성적과 그것들이 같이 두 바퀴가 굴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좀 특색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식을 나누어 주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임원들이나 회의할 때는 회의 대상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간식을 나눠 주더라고요. 다른 시도에서는 우리는 너무 많긴 많은데 전 선수들에게 갈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산 때문에 고민스러운데 그것을 분석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허승욱 상임부회장 〉

- 예. 충분히 의견 공감이 되고요. 그런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두 이사 〉

- 37페이지 보니까 미 설립 시·군 장애인체육회 조직이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부여, 서천, 금산, 논산 지금까지 추진 상황이 왜 안 되는지 이유와 저희들이 노력할 사항, 그런 사항들을 듣고 싶습니다.

〈 허승욱 상임부회장 〉

- 아직 15개 시·군중에서 11개 시·군 지부가 설립돼 있는데 비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지부도 빨리 여기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일단은 아무래도 장애인들에 참여 욕구라든지 장애인들이 많지 않은 이유일 텐데 보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철 사무처장 〉

- 현재 미 설립 시·군이 부여, 서천, 금산, 논산입니다. 부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부여 장애인도민체전 준비를 하려고 90% 가까이 준비가 됐다가 장애인 단체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현재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서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서천 군수님 면담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세워졌고요, 내년 3월 안에는 설립이 될 것 같습니다. 금산도 80~90%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산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되어 있는데 그 안에다가 장애인체육회도 통합운영을 한다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맨 나중에 접근하려고 사실 좀 간과 아닌 간과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서천과 금산이 설립이 되면 나머지 설립이 안된 2군데 시군을 집중적으로 접근을 해서 15개 시·군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허승욱 상임부회장 >

- 예, 교수님 의견처럼 저희가 목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원도 장애인체전 폐막식을 갔다 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행사를 위한 행사고 장애인체전이 아니라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이 끝나는 가장 끝 행사로써의 정도 밖에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박노철 처장님과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는 폐막식을 기획을 새롭게 해보자 그래서 폐막식이 아니라 전체장애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장애인체전에서 우리가 선전한 것에 대해서 축하도 좀 하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충남 장애인들이 모두 모여서 잔치 한번 시원하게 열어보자 그런 개념으로 폐막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롭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거기에 많은 장애인들이 같이 나오셔서 동참할 수 있는 폐막식을 기획해보자 이왕 이 예산들이 확보가 됐으니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이제 우리 15개 시·군에 그때까지 장애인체육회의 지부를 다 우리가 만들고 장애인지부들이 같이 동참하는 형태로 추진하게 되면 장애인체전이 더 명실상부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영 이사 >

- 저도 사실 좀 전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개회식을 가서 보니까요 끝나고 났는데 일반인들이 관중들이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셨어요. 동원이 많이 되셨더라고요. 먼저 번하고 같지 않아? 선물은 뭐야? 이러면서 가시면서 그것을 볼 때 정작 이 체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일단은 당사자들이 우선될 수 있는 그런 대회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아까 박광순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도 연맹이나 이걸 집결할 수 있고 같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먼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독려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연맹이 됐든 아니면 도체육회도 마찬가지로 힘을 내서 할 수 있게 좀 더 관심이 필요한 그런 대회인 것 같습니다.

< 허승욱 상임부회장 >

- 예, 충남에 등록 장애인이 12만 정도 되시는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목표를 그렇게 한번 세워보시죠. 개회식 때에는 가급적 자리가 불편하고 하지만 잘 운동장에 배치를 하던 고민들을 해서 개·폐회식 때에는 그 자리에 장애인들이 다 이거는 동원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오시는 거면 저희들이 적극 동원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면 된다. 그것이 행사에 기본이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장애인체육대회 개막, 그리고 폐막식 때는 우리 장애인들을 전적으로 한번 다 동원해보자. 이분들 나오시는 것만 해도 저희들은 큰 서로 같이 나누는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 이사 일동 >

- 없습니다.

〈 허승욱 상임부회장 〉

- 예, 그러면 의안번호 제3호 2016년도 사업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허승욱 상임부회장 〉

-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인데요. 충남장애인체육회 시·군 지부 및 가맹단체 규약 일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허승욱 상임부회장 〉

- 최재섭 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섭 팀장 〉

- 충남장애인체육회 시·군 지부 및 가맹경기단체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5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이유는 시군 장애인체육회 임원 및 가맹단체 임원이 성폭력,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해태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사임 후 임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가 발생 될 소지가 있어 관련규정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보완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시군장애인체육회 규약 준칙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9호 개정과 가맹단체 규약 준칙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2항 9호 개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허승욱 상임부회장 〉

- 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바광순 이사 〉

- 네, 의견 주고 할 필요 없이 이미 자세하게 해임된 자로만 뿐만 아니라 사임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사들을 바꿔야 하는 거니까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 허승욱 상임부회장 〉

- 예, 그러니까 해임된 자에서 사임하거나 해임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그랬네요. 공무원들은 사표를 내게 되면 보통 그냥 바로 사표가 수리되지가 않더라고요. 사표가 제출되면 경찰청, 검찰청으로 범죄 사실을 회신 받고 그 다음에 의원면직이라는 이런 과정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걸 보면 사실은 사표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범죄와 관련 된 건 여기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네요. 충분히 사임된 자가 다시 임용될 수 있는 그래서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좀 전에 주신 의견처럼 의안번호 제4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허승욱 상임부회장 〉

- 다음은 안건 의안번호 제5호 인사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허승욱 상임부회장 〉

- 최재섭 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섭 기획총무팀장 〉

- 인사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회의자료 5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기 이사직 임기만료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선출직 위원 4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에 상임부회장님과 위원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직원채용을 위한 고시 및 전형에 관한 사항 심의,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심의,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이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허승욱 상임부회장 〉

- 네, 그래서 추천(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각 분야별로 해서 이견휘 회장님, 박광순 회장님, 김상두 교수님 그리고 이은영회장님 이 자리에 계신분이 세분이신데요. 이렇게 추천(안)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 문인구 이사 〉

- 인사위원 추천(안)을 보니까 장애인체육회에 많은 조언과 의사결정을 해주시는 이사님들로 장애 유형별, 가맹단체, 교육계 또 여성인사로 조화롭게 분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견휘 회장님과 박광순 회장님께서 단체장을 겸임하셔서 조직 관리라던가 인사관리 장애인에 대한 사정을 잘 아실 것 같고 또 김상두 이사님께서 생활체육위원회와 전문체육위원회를 다년간 역임하시고 교수님으로 재직하시면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가 풍부하실 걸로 사례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계 이은영 이사님께서 보치아연맹 회장을 맡으시면서 연맹운영에 안정을 많이 기여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분을 인사위원으로 추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며 제청하는 바입니다.

〈 허승욱 상임부회장 〉

- 그러면 모두 마음을 모아주신 것에 큰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안번호 제5호 인사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이사님들이 심의 해주신 대로 네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허승욱 상임부회장 〉

- 이상으로 제39차 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시간 12:00 -